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 ~ 2】

(가) 가을이 깊어지면, 나는 거의 매일 뜰의 낙엽을 긁어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날마다 하는 일이건만, 낙엽은 어느 새 날아 떨어져서, 또 다시 쌓이는 것이다. 낙엽이란 참으로 이 세상의 사람의 수효보다도 많은가 보다. 삼십여 평에 차지 못하는 뜰이건만 날마다의 시중이 조련치 않다. 벚나무, 능금나무-제일 귀찮은 것이 벽의 담쟁이다. 담쟁이란 여름 한철 벽을 온통 둘러싸고, 지붕과 굴뚝의 붉은 빛만 남기고 집안을 통째로 초록의 세상으로 변해 줄 때가 아름다운 것이지, 잎을 다 떨어뜨리고 앙상하게 드러난 벽에 메마른 줄기를 그물같이 둘러칠 때쯤에는, 벌써 다시 거들떠볼 값조차 없는 것이다. 귀찮은 것이 그 낙엽이다. 가령, 벚나무 잎같이 신선하게 단풍이 드는 것도 아니요, 처음부터 칙칙한 색으로 물들어, 재치 없는 그 넓은 잎은 지름길 위에 떨어져 비라도 맞고 나면, 지저분하게 흙 속에 묻히는 까닭에, 아무래도 날아 떨어지는 족족 그 뒷시중을 해야 한다.

벚나무 아래에 긁어모은 ㉠낙엽의 산더미를 모으고 불을 붙이면, 속엿 것부터 푸스푸스 타기 시작해서, 가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바람이나 없는 날이면, 그 연기가 낮게 드리워서, 어느덧 뜰 안에 자욱해진다. 낙엽 타는 냄새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갓 볶아 낸 커피의 냄새가 난다. 잘 익은 개암 냄새가 난다. 갈퀴를 손에 들고는 어느 때까지든지 연기 속에 우뚝 서서, 타서 흩어지는 낙엽의 산더미를 바라보며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별안간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느끼게 된다. 연기는 몸에 배서 어느 결엔지 옷자락과 손등에서도 냄새가 나게 된다.

나는 그 냄새를 한없이 사랑하면서 즐거운 생활감에 잠겨서는, 새삼스럽게 생활의 제목을 진귀한 것으로 머릿속에 띄운다. ㉢음영과 윤택과 색채가 빈곤해지고, 초록이 전혀 그 자취를 감추어 버린, 꿈을 잃은 허전한 뜰 복판에 서서, 꿈의 껍질인 낙엽을 태우면서 오로지 생활의 상념에 잠기는 것이다. 가난한 벌거숭이의 뜰은 벌써 꿈을 꾸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탓일까? 화려한 ㉣초록의 기억은 참으로 멀리 까마득하게 사라져 버렸다. 벌써 추억에 잠기고 감상에 젖어 서는 안 된다.

가을이다! 가을은 생활의 계절이다. 나는 화단의 뒷자리를 깊게 파고, 다 타 버린 낙엽의 재를—죽어 버린 꿈의 시체를—땅 속 깊이 파묻고, 엄연한 생활의 자세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 속의 소년같이 용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나) 귀뚜라미, 달, 낙엽, 단풍……, 우리는 이런 낱말들만 보고서도 흔히 시정을 느낀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 온 시 속에는 가을을 소재로 한 것이 제일 많았던 것 같다. 그런데, 가을을 소재로 한 대부분의 문학 작품이 감상에 깊이 빠지고 있음도 사실이 아닐까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문학하는 태도를 한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낙엽이니 단풍이니 하는 것이 다 문학의 좋은 소재가 되는 것임엔 틀림이 없지만, 이를 보고 다만 감상에 빠지는 데서 끝나고 만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 문학을 나약하게 만들 위험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을을 조락의 계절로만 파악하여 애수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는 문학의 길을 개척해야겠다. 애수니 감상이니 하는 것도 물론 때로는 필요한 것이겠지만, 남들이 달나라를 여행하는 오늘, 우리만이 안이한 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 가을이 되어 나무가 그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그 나무의 신진 대사이지 생명이 다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가올 봄을 위한 준비요, 새 생활을 위한 생명력의 보강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학도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다만 피상적으로만 보고서 영탄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좀 더 젊어져야겠다. 우리의 문학도 좀 더 젊어져야겠다. 지는 잎을 바라보며 애수에

잠기는 감상 문학에서 벗어나, 새 봄을 준비하는 낙엽의 내적 생명력을 파악하여 그것으로 충만한 문학을 이루어야겠다.

【문 1】 (가)의 구성상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장소의 이동에 따른 구성 방식
- ② 화제끼리의 연상에 의한 구성 방식
- ③ 논리적 추론에 의한 연역법적 구성 방식
- ④ 대립을 지양하여 조화를 이루어 가는 변증법적 구성 방식

정답 : ②

해설 : 이 글은 이효석의 수필 '낙엽을 태우면서'로, 주제는 낙엽을 태우면서 느끼는 삶의 의욕과 새로운 의미 발견이다. '나'의 행동과 상념의 전개가 '가을 낙엽-담쟁이-벚나무-낙엽 태우는 냄새-생활의 상념' 등 연상적인 흐름에 따라 표현되고 있다.

【문 2】 (나)의 논지와 상통하는 말을 (가)에서 바르게 지적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정답 : ②

해설 : (나)의 끝부분을 보면, '지는 잎을 바라보며 애수에 잠기는 감상 문학에서 벗어나, 새 봄을 준비하는 낙엽의 내적 생명력을 파악하여 그것으로 충만한 문학을 이루어야겠다.'고 말함으로써 가을의 의미를 본원적이고 긍정적·생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활의 의욕'이 정답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 ~ 4】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므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언어는 이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인간이 고안해 낸 기호 체계이다. 의사소통을 위한 표현과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언어 기호를 상징(象徴)이라고도 부른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언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그 중에서도 다음 두 가지만은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하나가 ㉠언어 기호로서의 언어이며,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언어활동, 즉 ㉡담화(談話, 이야기)로서의 언어이다. 언어 기호로서의 언어는 특정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사용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형식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언어 표현은 후자에 속한다.

얼굴이 예쁘구나!

꽃은 인간을 위해서 핀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현실적인 언어활동으로서의 담화이며 음성이나 문자로 실현된 것이다. 언어 기호와 언어활동의 차이점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위의 문장에서 볼 때, '얼굴'이라는 명사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물을 지시하는 언어 기호이며, 결코 그 사물 자체가 아니다. 이처럼 기호가 가리키는 사물을 기호의 지시 대상(指示對象)이라 한다.

한편, "얼굴이 예쁘구나!"와 같은 현실적인 담화, 또는 그 표현 형식은 지시 대상을 가진다고 보기가 어렵다. '지시'나 '지시 대상'이니 하는 것은 바로 언어 기호의 문제이며 담화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담화로서의 언어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얼굴'에 대하여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심리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다.

【문 3】 이 글의 서술 방식이 아닌 것은?

- ① 대상을 묘사하며 설명하고 있다.
- ② 개념을 정의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 ③ 적절한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 ④ 대상 간의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정답 : ①

해설 : 이 글은 언어와 상징, 언어 기호와 언어활동인 담화 등에 대한 개념을 풀이하고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문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어떤 정태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그려내는 '묘사'의 설명 방식은 활용하지 않았다.

【문 4】 ㉠과 ㉡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집과 건축 재료
- ②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
- ③ 작곡가가 작곡한 작품과 연주자의 실제 연주
- ④ 혁명가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과 현실적인 세상

정답 : ③

해설 : ㉠과 ㉡은 기본적인 대상과 그것이 실현된 실제적인 사물의 관계이므로 ③이 유사하다. ①은 전체(구조물)과 구성 요소의 관계이고, ②는 대상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대립적 하위 유형 관계이다. ③은 어떤 사물과 그것의 실제화이고, ④는 현실과 이상이라는 배타적 성격을 지닌 대립적 의미관계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5 ~ 6】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넌라와 시름 한 나도 /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나)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술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뚱뚱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댓 골 골짜기서 울어 오는 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질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어린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어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 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 줄 불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빠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다)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발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 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

【문 5】 (가)~(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태도는?

- ①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 ② 부정적 현실적 삶을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 ③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④ 과거에 대한 긍정적 사고로 현실과 미래가 부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정답 : ③

해설 : (가)는 고려속요 '청산별곡'으로, 현실도피적인 생의 안식처인 '청산'을 희구하고 있으나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박두진(1913~1981)의 '청산도'인 (나) 또한 '티끌 부는 세상에도 별레 같은 세상'과 같은 혼란스러운 시대적·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순수한 평화와 광명의 세계인 '청산'을 갈망하고 있다. 화자는 '불이 고운 사람'을 그리워하지만 그 만남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김기림의 시 '바다와 나비'인 (다)도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을 그리고 있다.

【문 6】 (다)에서 '흰나비'가 지향하는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① 수심(水深)
- ② 날개
- ③ 꽃
- ④ 초승달

정답 : ③

해설 : 나비가 바다로 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꽃을 찾기 위해서이다. 다만, 바다는 무생명성과 불모성(不毛性)을 지닌 공간이요, 수심(水深) 또한 현실의 가혹한 질서로 상징화되어 있다. 그리고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는 냉혹한 현실과 좌절된 나비의 꿈을 감각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문 7] 다음 글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상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 많다.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쌓여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어디 신처럼 전지전능한 존재인가.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다. 말하자면 ()의 심정으로 노력하는 데 인간적 매력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노력이나마 포기하고 만다면 그것은 절망이요, 낙망이요, 좌절이고, 진정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 ① 주경야독(晝耕夜讀) ② 후생가외(後生可畏)
③ 우공이산(愚公移山) ④ 와신상담(臥薪嘗膽)

정답 : ③

해설 : '불가능한 일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다.'에서 단서를 얻는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은 불가능할 것 같았으나 우공이 끊임없이 노력해서 결국 산을 옮겼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므로, 가장 답에 어울린다. ①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곳곳이 공부함을 이르는 말이고, ②는 후배가 두려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④는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어서 답과 거리가 멀다.

【문 8】 다음 중 어휘 선택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치를 정성스럽게 담가서 보내 줬네.
② 날이 추워서 두꺼운 외투를 입고 외출했어.
③ 누이는 임신을 하여 홀몸이 아닌데도 고생이 많다.
④ 이번에 적절하게 잘 투자해서 몇 갑절이나 이익이 났어.

정답 : ④

해설 : '곱절' 앞에는 수식어가 놓일 수 있지만, '갑절'은 두 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식어가 놓일 수 없다. 따라서 '곱절'이 맞다.

【문 9】 다음 글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한 대목이다. 글의 통일성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의 순서를 바르게 잡은 것은?

어린 왕자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윽고 이런 말을 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꽃 때문에 별들은 아름다운 거야……”
나는, / “그렇고말고” / 하고 대답한 뒤에 아무 말 없이 달빛 아래 펼쳐진 주름진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다.

㉠ 그것은 사실이였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해 왔다. 모래 언덕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 그러나 침묵을 뚫고 무엇인가 빛나는 것이 있다.
㉣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말했다.
㉤ 나는 모래 속의 그 신비로운 빛남이 무엇인지를 갑자기 깨달은 데 대해 놀랐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 ③

해설 : 문장의 순서를 구성할 때에는 우선 접속어와 연결어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문장 간 뒷부분의 내용과 앞부분의 연결성에 주목한 뒤, 최종적으로 논리적 연관성을 생각해 본다.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다.’의 모래 언덕과 우선 연결되는 것은 ㉔ ‘사막’이다. 그리고 ㉓ ‘그것은’ 지시어가 가리키는 바는 ‘사막의 아름다움’이므로 다음으로 연결된다. 그 다음, 내용이 전환되면서 ㉔이 이어지고, ㉓ 어린 왕자의 말을 듣고 나의 깨달음이 이어지는 ㉔을 마지막에 놓는다.

【문10】 다음 중 읽기가 잘못된 것은?

- ① 함부로 꽃을 밟지[발찌] 마시오.
- ② 그 종이는 그렇게 얇지[얇찌] 않아.
- ③ 어머니의 사랑은 넓고도[널꼬도] 높다.
- ④ 그 사람 얼굴은 넓둥글게[넙뚱글게] 생겼어.

정답 : ①

해설 : ‘밟’ 받침은 불규칙 발음이다. 일반적으로는 ‘ㄹ’ 대표음이지만, ‘밟다’의 자음 어미 활용이나 ‘넓-’이 결합된 복합어는 ‘ㅂ’ 대표음이다. ‘밟지[밟:찌]’, ‘넓둥글게[넙뚱글게]’ 등이 그러하다.

【문11】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나는 남 앞에서 말을 할 때 자신이 있다.
- ② 십구억 팔천칠백육십오만 사천삼백이십일
- ③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뭉게 구름 그린 그림이다.
- ④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정답 : ③

해설 : ‘뭉게구름’은 구름의 일종으로 유속 합성어이므로 붙여 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2 ~ 14】

두 달 전 그때만 같았어도, ‘이놈!’ 하고 호통을 하여 당장 물고를 내련만, 그 좋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이 지경이란 말인지 몰랐다. 하여튼 그만치나 혼란스런 백 주사예다 대면 미스터 방의 ㉔근지야 아주 보잘 것이 없었다.

미스터 방의 증조가 타관에서 떠들어온 명색 없는 사람이었다. 그 조부가 고을의 아전을 다 냈다. 그 아버지가 짚신장수였다. 칠십에, 고로롱고로롱, 아직도 살아 있지만, 시방도 짚신 곱게 삼기로 고을에서 첫째가는 방 첨지가 바로 그였다. 그리고 이 방삼복이는……. 먹고 자고 꿁꿁 일하고, 자식새끼 만들고 할 줄밖에는 모르는 상일꾼(농부)였었다. 그러나마 삼십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이집 저집 살고 다니는 코빼똥이 삼복이었다. 물론 낫 놓고 기역자도 못 그리는 ㉔판무식이었다.

상일꾼일 바엔 남의 ㉔세토(貰土) 마지기라도 얻어 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삼십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고 다니던 코빼똥이 삼복이가 하루 아침 무슨 생각이 났던지, 돈 벌이를 간담시고, 조석이 간데없는 부모에게다 처자식 떠맡기고는 훌쩍 일본으로 떠나 버렸다. 그것이 열두 해 전.

떠난 지 칠팔 년을 별반 신통한 벌이도 못 하는지, 돈 한 푼 보내는 싹도 없더니, 하루는 느닷없이 중국 상해에 와 있노라 기별이 전해져 왔다. 그리고는 감감 소식이 없다가, 삼 년 만에 푸뜩 고향엘 돌아왔다. 십여 년을, 저의 말파나 동양 삼국 물 끌고루 먹고 다녔으면서, 별로이 때가 벗은 것도 없어 보이고, 행색은 헤어진 양복 누더기에 불 켜어진 구두짝을 꿰고 들어서는 모양이, 군데군데 김질은 하였으나 빨아 다린 무명 고의적삼을 입고 고향을 떠날 적보다 차라리 초라한 것 같았다.

다시 일 년이나는, 그것 역시 상해에서 익힌 것을 밀천삼아 구두 직공으로 구둣방엘 다니며
그럭저럭 살았고. 그러다 일본이 싸움에 지느라고, 구두를 너무 해트려 가죽이 동이 나서, 구둣
방이 너나없이 문을 닫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번엔 껌짜 한 개 짹어지고 ㉔신기료장수로 나
서고 말았다.

윗글은 해방 직후의 혼탁한 사회에서 발빠르게 적응해가는 인물의 삶을 ()으로 그리고 있다. 방향성을 잃고 그때 그때 세력가만을 쫓는 기회주의적 인물의 행태를 통해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 해설 : 이 글은 1946년에 발표된 채만식의 단편 소설 '미스터 방'의 일부이다. 주인공인 방상복(미스터 방)은 신기료장수를 하는 보잘것없는 처지였으나 영어를 조금 할 줄 안다는 것에 힘입어 광복 직후 진주한 미군 장교의 통역으로 취직해 출세길에 오르는, 광복 직후 사회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인물이다. 이 소설은 광복 직후 새롭게 진주한 외세에 기대어 출세를 지향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이 해학적·풍자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희화적(戲畵的)'이란 부정적 인물을 풍자의 의도로 익살맞고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표현 방식이다.

해설 : '세 토(貰土)'는 해마다 일정한 양의 벼를 주인에게 세(稅)로 바치고 부치는 논밭을 이른다.

해설 : 이 작품의 작자인 채만식의 경향을 말하고 있다. ① '카인의 후예'는 일제말의 수탈과 분단의 슬픔에 이르기까지 민족적 비극과 싸워야 했던 한국인의 휴머니즘과 자유를 향한 결단을 담은 황순원의 소설이다.

7

- ①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쓴다.
- 동사, 형용사를 합하여 용언이라고 한다.
- ② 제시어 다음에 쓴다.
- 빵, 빵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 ③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 쓴다.
- 슬픈 사연을 간직한, 경주 불국사의 무영탑.
- ④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쓴다.
-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정답 : ①

해설 : ①의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는 가운뎃점을 쓰는 것이 바르다. 즉 '동사·형용사를 합하여 용언이라고 한다.'로 써야 한다.

【문16】 다음 예화는 공익 광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설명이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한 번 닭아 내면 한 마리가 옵니다.

폐식용유를 버릴 때 휴지로 한 번 닭아 주세요.
우리의 강과 호수에 더 많은 철새가 찾아오게 만듭니다.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인 주남저수지.
지난 해 그 곳을 찾은 새들의 수는 10년 전의 1/10로.....
이제 더 이상 철새들의 낙원이 아닙니다.
오염된 물이 새들을 내몰고 있는 것이죠.
오염원의 절반 이상은 생활하수.
그 중 정화되기까지 약 20만 배의 맑은 물을 필요로 하는
폐식용유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폐식용유를 버릴 때 잠깐만 생각해 주세요.
휴지로 닭아 내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우리의 강과 호수에 더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게 한다는 것을.....

- ① 내용 - 폐식용유 폐기를 문제 삼으면서 수질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광고
- ② 주제 - 폐식용유를 휴지로 닭아내고 버리자
- ③ 대상 - 식용유 등을 버릴 수 있는 가정주부, 식당요리사 등
- ④ 목적 - 폐식용유를 함부로 버리는 일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한 정보 전달

정답 : ④

해설 : 광고문은 본래 설득적 성격이 강한 글이다. 이 글도 단순히 정보나 사실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심각성을 인식하여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글이다.

【문17】 아래 글은 1896년 [독립신문] 창간호 사설의 일부이다. 다음 중 설명이 가장 옳바르지 못한 것은?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거슨 상하귀천이 다보게 흠이라 또 국문을 이러케 귀절을 세여 쓴즉 아모라도 이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는 말을 자세이 알아 보게 흠이라

- ① 독립신문 창간의 취지를 밝힌 글이다.
- ② 현대 국어에서보다 어절 단위의 띄어쓰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③ 한문의 어순을 그대로 직역한 문투를 반영하고 있다.
- ④ 음가가 소실된 글자가 쓰여 보수적인 모습을 보인다.

정답 : ①

해설 : [독립신문] 창간호 사설의 끝 부분에는 창간 취지와 구독을 권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지만, 제시문은 창간 취지가 담겨 있지 않다. 국문 사용 및 띄어쓰기의 의의를 말하고 있다. 띄어쓰기가 지금처럼 철저하지 않으며, '~게 흠이라' 등의 한문 번역투,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미 음가가 사라진 아래아(·)를 쓰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18 ~ 19】

나.랏.말쑈.미中등國.국.에달.아文문字.쥬.와.로서르스뭇.디아.니홀.썩.이런전.츠.로어.린百.씩姓.성.이니르.고.저.흙.배이.셔.도.ㅁ.츄.내제.쁘.들시.러퍼.디.몬.흙.노.미하.니.라.내.이.를爲.왕.ㅎ.야.어엿.비너.겨.새.로.스.믈여.뽳字.쥬.를밍.ㄱ노.니.사름.마.다.히.여.수.비니.겨.날.로.뿌.매便便安한.키ㅎ.고.저. 흙썩르.미니.라.

【문18】 이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문자 생활에서 실용화 추구
- ② 당시 의사소통 과정의 어려움
- ③ 창제한 문자의 수
- ④ 한자 배우기의 어려움과 중국어 비판

정답 : ④

해설 : ① '수·비니·겨·날·로·뿌·매 便便 安한·키 ㅎ·고·저 흙썩르·미니·라.', ② '어·린 百·씩姓·성·이니르·고·저·흙·배이·셔·도·ㅁ·츄·내제·쁘·들시·러퍼·디·몬·흙·노·미하·니·라' ③ '스·믈여·뽳字·쥬·를밍·ㄱ노·니' 등에 나타난다. 그러나 한자 배우기의 어려움이나 중국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어와 우리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19】 이 글에 사용된 낱말 중 현대 국어에 와서 그 의미가 달라진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어엿·비, ㅁ·츄·내 ② 어엿·비, 노·미
- ③ 노·미, 밍·ㄱ노·니 ④ 새·로, ㅁ·츄·내

정답 : ②

해설 : 이 글에서 의미가 변화된 낱말 중에서 '어엿비(불쌍히→예쁘게)'와 '어린(어리석은→어린)'은 의미가 이동되었고, '말 츄(말→높임말·낮춤말)'과 '놈(사람→낮춤말)'은 의미가 특수화(축소)된 말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20 ~ 21】

나는 그믐달을 사랑한다. 그믐달은 요염하여 감히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말을 붙일 수도 없이 캄캄하게 예쁜 계집 같은 달인 동시에, 가슴이 저리고 쓰린 가련한 달이다. 서산 위에 잠깐 나타났다가 숨어 버리는 초생달은 세상을 후려 삼키려는 독부(毒婦)가 아니면, 철모르는 처녀 같은 달이지마는, 그믐달은 세상의 갖은 풍상을 다 겪고 나중에는 그 무슨 원한을 품고서 애처롭게

쓰러지는 원부(怨婦)와 같이 애절하고 애절한 맛이 있다. 보름에 둥근 달은 모든 영화와 끝없는 숭배를 받는 여왕과도 같은 달이지만, 그믐달은 애인을 잃고 쫓겨남을 당한 공주와 같은 달이다.

초생달이나 보름달은 보는 이가 많지마는, 그믐달은 보는 이가 적어 그만큼 외로운 달이다. 객창(客窓) 한등에 정든 임 그리워 잠 못 들어 하는 분이나, 못 견디게 쓰린 가슴을 움켜잡은 무슨 한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달을 보아주는 이가 별로이 없을 것이다. 그는 고요한 꿈나라에서 평화롭게 잠들은 세상을 저주하며, 홀로이 머리를 흔들리고 우는 청상과 같은 달이다. 내 눈에는 초생달 빛은 따뜻한 황금빛에 날카로운 쇠소리가 나는 듯하고, 보름달은 치어다보면 하얀 얼굴이 언제든지 웃는 듯하지만, 그믐달은 공중에서 번들하는 날카로운 비수(匕首)와 같이 푸른빛이 있어 보인다. 내가 한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달을 많이 보고 또 보기를 원하지만, 그 달은 한 있는 사람만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늦게 돌아가는 술주정꾼과 노름하다 오줌 누러 나온 사람도 혹 어떤 때는 도둑놈도 보는 것이다.

어떻든지 그믐달은 가장 정 있는 사람이 보는 동시에, 또는 가장 한 있는 사람이 보아 주고, 또 가장 무정한 사람이 보는 동시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보아 준다. 내가 만일 여자로 태어날 수 있다면 그믐달 같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문20】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독특한 시각과 세밀한 관찰이 잘 드러나 있다.
- ② 단정적인 표현을 통해 주로 인간의 허물을 비판하고 있다.
- ③ 다양하고 참신한 비유가 돋보인다.
- ④ 대상에 대한 지은이의 애정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정답 : ②

해설 : 이 글은 1925년에 <조선문단>에 발표한, 나도향의 서정적 수필인 '그믐달'이다. '그믐달'에서 느껴지는 애절함과 한스러움을 작자 특유의 참신하고 개성적인 시각, 화려한 비유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낸 작품이다. 한 많은 그믐달을 사랑하는 마음을 직서적으로 표출했지만 인간의 허물을 비판하지는 않았다.

【문21】 그믐달을 보아 주는 사람들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 많고 고통을 느끼며 소외된 사람들이다.
- ② 항상 음흉하고 독한 사람들이다.
- ③ 늘 착하고 온순한 사람들이다.
- ④ 소극적이며 심약한 사람들이다.

정답 : ①

해설 : '객창한등에 정든 임 그리워 잠 못 들어 하는' 사람, '못 견디게 쓰린 가슴을 움켜잡은 무슨 한 있는 사람', '한 있는 사람만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늦게 돌아가는 술주정꾼과 노름하다 오줌 누러 나온 사람도 혹 어떤 때는 도둑놈' 등이 보는 달이라고 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22 ~ 23】

신부는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겨우 귀밑머리만 풀리운 채 신랑하고 첫날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 신랑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돌쩌귀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신랑은 생각이 또 급해서 제 신부가 음탕해서 그 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당기는 거라고, 그렇게만 알곤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 버렸습니다. 문돌쩌귀에 걸린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 누곤 못 쓰겠다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40년인가 50년이 지나간 뒤에 뜻밖에 딴 볼일이 생겨 이 신부네 집 옆을 지

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신부방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신부는 귀밑머리만 풀린 첫날 밤 모양 그대로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재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 재와 다홍 재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문2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초록과 다홍의 색채심상이 선명히 대비되었다.
- ② 전설을 바탕으로 사실적 즐거움과 감동을 높여준다.
- ③ 특정부분을 강조하여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 ④ 능청스러우면서도 친근감 있는 어조로 사건을 생략했다.

정답 : ②

해설 : 이 시는 전통 설화에 바탕을 둔, 서정주의 산문시 '신부'이다. 고통과 슬픔, 한(恨)이 내재된 한국 여인의 매운 절개를 담담하고 친근감 있는 짧은 이야기체로 엮었다. 신부가 재가 되어 내려앉았다는 신비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사실적 즐거움은 적절치 않다.

【문23】 밑줄 친 '신부'에 대한 토의 내용이다. 윗글과 관련하여 가장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 ① 영희 : 신랑보다는 신부가 더 불쌍하고 안쓰럽게 느껴지는걸.
- ② 철수 : '일부종사'의 덕목을 목숨을 걸고 지켜낸 여인이라는 유교적 교훈을 강조한 듯해.
- ③ 영수 : 신부는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 수 있는 초월적 존재야.
- ④ 순희 : 그만큼 신부가 강한 집념과 매서움을 지닌 거지.

정답 : ②

해설 : 이 시는 단지 유교적 정절 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작품은 아니다. 현실적 세계관이었던 유교의 정절이 전통적인 한(恨)의 미학을 통해 신화적 세계관의 경지로 승화된 작품이다.

【문24】 글을 읽을 때나 말을 들을 때에도 규범에 대한 지식은 필요하다. 다음 중 의미파악이 올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철수는 나와, 영민이를 때려 주었다.
⇒ 철수와 나 두 사람이 영민이를 때렸다.
- ② 철수 : 할 거니, 안 할 거니?
영민 : 기필코
⇒ 영민이는 '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 ③ 진수 : 철수는 합격 했니?
수진 : 묻지 마.
영민 : 안 됐어? 안됐네.
⇒ '안됐네'는 불합격해서 애석한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 ④ 철수는 다른 여자 친구를 사귀고 있었다.
그러나 영민이는 그것을 모르는 체 생활했다.
⇒ 영민이는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다.

정답 : ④

해설 : ①은 반점을 사용하여 중의성을 벗어나고 있다. ② '기필코'는 '반드시'와 같은 말로 긍정 서술과 호응을 이룬다. ③ '섭섭하거나 가없어 마음이 언짢다'는 의미일 때는 '안되다'로 붙여 쓴다.

④ '체'는 '척'과 같은 말로,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말이고, '채'는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체'를 썼으므로,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했다는 말이다.

【문25】 다음 글에서 ()에 가장 적절한 것은?

문학은 인간의 상상력을 활용하여 현실의 모습을 그려낸다. 다시 말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하여 현실을 재창조, 재구성하여 작품 속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문학과 현실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 | |
|------------|------------|
| ① 대등적(對等的) | ② 대비적(對比的) |
| ③ 상보적(相補的) | ④ 유추적(類推的) |

정답 : ④

해설 : 문학은 현실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추리 상상에 의해 현실을 재창조한다고 했으므로, '유추(유사성과 추리)적'이 어울린다.